

여우와 두루미

나오는 인물: 여우, 두루미

옛날에 여우와 두루미가 살고 있었어요. 어느 날 저녁, 여우가 자신의 집에 두루미를 초대했지요. 하지만 잔뜩 기대를 하고 갔던 두루미는 실망을 하고 말았어요. 차려놓은 음식을 보니 납작한 접시에 음식이 담겨있지 않겠어요?

여우: 자, 두루미님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.

그렇게 말한 여우는 기다란 혀를 내밀고는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요. 하지만 두루미의 입은 기다랗고 딱딱한 부리로 되어 있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냄새만 맡을 수 있을 뿐 접시 위에 음식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. 두루미는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왔지요.

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, 이번에는 두루미가 여우를 집으로 초대했어요. 음식은 길쭉한 병에 들어 있었지요.

두루미: 여우님, 음식이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.

이렇게 말한 두루미는 기다란 주둥이를 병 속에 넣고는 그 안에 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. 여우도 주둥이를 병 속으로 넣어 보려고 했지만 냄새만 맡을 수 있을 뿐 조금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. 어쩔 수 없이 여우는 침을 흘리며 두루미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답니다.

여우와 두루미에게 한마디!	